

# 전남도 '종이 어장지도' 없앤다

11월까지 어장좌표 DB화...내년부터 온라인 통해 안방서 확인 가능

내년 1월부터는 해독은 종이 어장도가 사라지고 온라인을 통해 안방에서 어장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어장도 전산화 작업에 착수해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어장좌표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하기로 했다.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어장좌표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어업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상의 토지 지적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장도는 해상 어업권을 어업인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어장공부로, 수산업법이 시행된 1961년부터 지금까지 종이로 제작됐다.

그러나 관리과정에서 쉽게 마모되거나 훼손되고 지형의 변화로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자주 제기돼 4차례나 반복 제작되기도 했다.

또 어업면허처분과 통계, 민원발급 등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능률이 떨어지고 민원인이 어업권부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개선요구가 많아질 않았다.

전남도는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서류 원격지 발급과 시·군별 어장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어장개발정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전남도가 구축한 시스템을 모델삼아 어장전산화 작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면허된 어업권은 6천 180건 14만 3천㏊에 달한다. 어업권별로는 양식어업이 4천 869건 9만 1천㏊, 정치방어업이 47건 6천㏊, 마을어업이 1천 264건 5만 1천㏊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화순군, 700세대 대상

화순군이 차상위계층 700세대에 대한 지원율을 대폭 늘린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잘사는 화순 만들기 추진전략인 '비전1030' 실현의 일환으로 생활이 곤란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율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말한다.

군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을 지원,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지원항목은 국민건강보험료 8천 400만원, 전기료 4천 200만원, 월동난방비 5천만원 등 1억 7천 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0% 증가한 금액이며, 전액 군비로 충당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해 재래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해남, 전국 최고 음식고을 꿈꾼다

### 개인찬기·수저 받침대 모범음식점 배포

### 대흥사 시설지구 20곳 웰빙 음식촌 추진

'닭요리 먹거리촌' 성공신화를 일군 해남군이 올해 전국 최고의 음식고을을 꿈꾸고 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에 개인찬기와 수저받침대를 제작해 나눠주고,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범음식점 운영정례화를 꾀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운영 정례회는 맛과 위생, 친절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은 과감히 탈락시키고, 충족된 음식점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다.

이와 함께 닭요리 먹거리촌에 이어 올해도 산채 비빔밥과 쌈밥을 주메뉴로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20개소를 싸면서도 맛있는 웰빙 음식촌으로 달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에 발맞춰 해남을 찾는 선수들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음식점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해남군은 전국 최초 맛지도 제작배부, 닭요리 먹거리촌 조성,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주민홍보 등을 진행해 남도음식문화 개선사업 전남도 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음식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 화산농협 '땅끝愛 고구마'·나주 공산농협 '그리운 고향잡곡'

## '밭작물 브랜드' 육성 대상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밭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의 첫 사업 대상자로 해남 화산농협의 '땅끝愛 고구마' 등 6개 브랜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6곳은 해남 화산농협 외에

나주의 공산농협(그리운 고향잡곡), 강원도 영월의 승당가공 영농조합법인(동강애 육수수), 충북 피산의 군자농협(대학 쌀육수수), 전북 익산의 날

고 40%·지방비 40%·자부담 20%)을 투입해 잡곡류를 브랜드화하는 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현대화하게 된다. 또 농가 교육, 경영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410억 원을 들여 모두 40개 브랜드 사업자를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1140, 5210 011-602-2532

(주)동원 신문집행, 대인동 소ング사(라나)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보부동산컨설팅

☎ (0)2-8849 011-602-2233

(산수동 543-51) (두암타운입구 삼거리)

### 싼땅매매

·본·신수동 35평대짜리 14,200㎡ 매매가 8억 5,000만원에 주소: 방화동지구 14,200㎡ 매매가 8,000만원

·광주 강원동 1,941㎡ 매매가 2억 4,000만원

·당구장 9,000㎡ 매매가 1억 5,000만원

·당구장 대상면 1,000㎡ 매매가